

글로벌시대 식품산업의 과제와 전망

Challenges of Food Syste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한 두 봉

Doo-Bong Han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식품산업은 21세기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식량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의로서의 식품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음·식료제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가공업, 냉동보관업 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로서의 식품산업이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농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 중에서 행해지는 제반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식품제조업, 수집·중개업, 운수·보관업, 외식업, 식품도·소매업, 용기·포장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요의 가격과 소득탄력성이 낮아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량생산체계가 적당하지 않

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리고 생산비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식품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높으며, 대장급 드라마를 통한 한국 음식의 전파와 같이 문화전파효과가 뛰어나 자국홍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명, 과학, 관광 산업 등 다른 관련 산업과 연계해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식품산업 현황

국내 식품소비구조의 변화를 보면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산되어 고품질, 안전 식품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0년 1,500억 원에서 2006년 1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망된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즉석조리식품 및 편의품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 시장규모가 2006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총 식품소비 지출액 중 신선농

Corresponding author: Doo-Bong Han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Phone : +82-2-3290-3035
Fax : +82-2-3290-3030
e-mail : han@korea.ac.kr



수산물의 비중이 1990년 55.7%에서 2007년 31.7%로 감소한 반면 외식에 대한 소비는 1990년 20.3%에서 2007년 47.2%로 증가추세에 있다. 대형할인매장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국내외 상품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게 하는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확대되고 있는 대형할인점 시장이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2007년 대형할인점 수는 382개이고 판매액은 28.9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식품제조업체 규모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영업 중심의 영세업체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종업원 수) 식품제조업체 수를 보면 종업원 30명 내의 사업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 수가 전체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1995년 24조원에서 2006년 35조원으로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를 보면 2001년 3,293백만 달러에서 2005년 3,700백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0년 4,300백만 달러로 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식품 수출입 규모는 290 백만 달러이며, 식품 수출국별 수출액을 보면 유럽이 약 60 백만 달러, 미국이 32 백만 달러로 두 국가가 전 세계 수출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식품 수입국의 수입액을 보면 미국이 53 백만 달러, 유럽이 52.7 백만 달러, 일본이 36 백만 달러로 3개국이 전 세계 수입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식품소비구조를 보면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성 때문에 유기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및 HACCP과 같은 식품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이 주요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식생활이 외부화 및 간편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활동 및 독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패스트푸드 및 일회용 식사가 차지하

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05년 가계의 외식 지출비중이 전체 식품비 지출의 3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식품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성 및 생활패턴이 변화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식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여성들만을 위한 식품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여러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산업의 도전

글로벌화의 진전과 무역자유화에 따라 식품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산 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며, WTO/DDA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식품시장의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식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특히 GMO 식품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와 환경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방사선 살균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끈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해당 품목이나 유통과정상 단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단계, 가공정도, 원료함량 등에 따라 3개 부처가 나누어 식품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다.

식품유통 시장의 변화가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식품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의 소매 유통구조가 과거의 재래시장, 슈퍼마켓에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소매 유통업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대형 유통 소매업체들은 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수직적으로 계열화하고 통합하여 자체상표 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월한 가격 교섭력을 바탕으로 원료생산자가 저가로 납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기술개발과 새로운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식품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사회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면서 식품소비의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식품소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고객만족을 최우선과제로 상품, 서비스,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도 환경문제가 관심 사항으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포장, 어류남획, 식품 원료생산에서 발생하는 토양, 수질, 대기오염 등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낮은 인구증가율과 도시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시간 확대가 식품에 대한 소비 및 외식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서구형 식품의 확산과 더불어 외식과 편리식품의 소비증가는 소비자들의 비만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비만 치료와 방지를 위한 다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방안

식품산업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식품 위생과 품질관리를 전제로 식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에 있어서는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항생제 사용을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식품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대적용 해야 하며, 식품 안전성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수산

물과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 식품기업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 품목별, 분야별, 업종별로 지역클러스터와 교류를 확대하고 식품산업에 대한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식품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전통음식에 대한 세계화와 더불어 외식산업 및 식품유통업의 해외진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전통음식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대표 식품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수출 전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식품에 대한 품질향상 및 유통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에 대한 전통음식의 실태조사 및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사슬관리(SCM) 측면에서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식품산업의 물류 효율화가 필요하다. 공급사슬관리를 이용한 소비자유통업체, 도매업체, 산지원료생산업체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품질 및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고문제를 해결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공급사슬관리 구축을 위해 식품상품에 대한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요하고, 정부도 식품물류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